

종단소식

조계종

고운사 대웅전 낙성

16교구본사 의성 고운사(주지 법조)는 29일 종합불사 낙성식 및 보살계수계법회를 봉행한다.

대운사 본말사 주지연수

22교구본사 해남 대운사(주지 천운)는 29일 본말사주지연수회를 갖는다.

태고종

종조탄신 696주년 다례

10년 불사로 진행된 종합불사로 대웅전을 낙성하는 한편 사찰조경을 일제히 정비했다.

총무원(원장 인곡)은 22일 오전 11시 북한산 태고사 태고코우국사 부도 앞에서 종조탄신 696주년 다례법요식을 봉행한다.

다례법요식은 보성 종정스님을 비롯한 종단 원로대덕스님과 인곡 총무원장스님, 종단간부, 김철회 전국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다.

영산대법회 國齊로

국민대화합과 평화통일기원을 위한 영산대법회가 21일 오전 11시부터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봉행된다.

1부 법요식은 중요유형문화재 제48호 제50호 지정 스님들과 교수·이수생들이 출연해 식전행사 법요식 대체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대화사(총무원장) 법어(중정)가 있다. 오후 2시부터 2부 영산대제가 펼쳐진다.

천태종

여주 성주사 관음전 낙성

경기 여주 성주사(주지 경혜)는 16일 관음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2년여 공사 끝에 완공된 관음전은 1백50평 규모로 요사채도 함께 마련됐다. 성주사는 낙성식에 앞서 불보살을 기렸다. 경혜스님은 "관음전과 요사채를 한 건물로 지은 것은 신도들이 마음놓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지역 어린이 체육대회

총무원(원장 운덕)은 19일 경기 이천 장화사에서 제11회 중부지역 천태어린이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를 개최했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남북도 소재 30여개 말사 어린이회에서 모두 1천여명의 어린이가 참가했다.

체육대회는 팀별 응원전을 비롯해 선생님·부모와 함께하는 배구대회, 스님과 함께하는 깃발꽃기, 이어달리기, 합동출발기, 협동출타리기, 부모와 물풍선 주고받기 등의 경기로 진행됐다.

진각종

정기총회 예산안 다뤄

제311회 정기총회의가 22일 오후 5시 종의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정기총회 주요 안건은 전기51년도(97년) 수입·세출 및 추가경정 예산안과 전기52년도 수입·세출 예산안 등이다.

종조 열반 34주기 법회

통리원(원장 성초)은 16일 종인원 종조전에서 제34주기 종조열반절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다도공양에 이어 종조법어 봉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성초 통리원장을 비롯한 종단간부 및 각 심인당 스승 등 4백여명이 참석했다.

성초 통리원장은 봉축사에서 "회당 대운사의 창종정신을 기려 종단발전에 더욱 매진하자"고 말했다.

보문종

보문사 탐전기도

총무원(원장 해일)은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보문동 보문사에서 탐전기도를 봉행한다. 탐전기도에는 매년 연인원 3천여 불자들이 동참해 왔다.

이번 행사는 오대산 월정사 탐을 재현해 78년 보문사 경내에 세운 8각9층탑 건립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실시해온 것으로, 8각9층탑에는 스티리악으로부터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3과가 봉안돼 있다.

조동종

정도사 지장보살 점안

총북 음성 정도사(주지 지홍)는 11일 대웅전 낙성식 및 지장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대웅전은 60평 규모로 1년여 공사 끝에 완공됐으며, 지장보살 점안법회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봉행했다.

참선으로 복지일꾼 키운다

원광보건대 '사회복지와 선' 과목 개설

현대사회 물질지원보다 정신 맑게해야 좌선·요가 등 강의... "타계열학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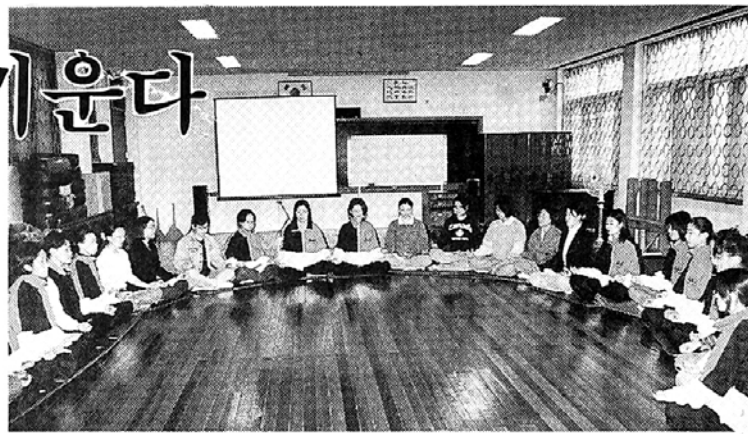
참선과 선체조를 응용하는 새로운 복지문화가 탄생될 전망이다. 원광보건전문대학 사회복지과(학과장 김인종교수)는 대학 특성화정책에 따라 이번 2학기부터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와 선(담당교수 이정숙)'이라는 전공과목을 신설했다.

매주 선실습실에서 2시간 교육하는 이 강의에는 2학년 40여명의 예비 사회복지자들이 수강중이다. 강의내용은 인간의 선, 선문화와 복지, 기혈유통행선, 경행, 교정행선, 유행행선, 순환행선, 내력증강행선, 능력개발과 욕망줄이기, 의식행선, 자유행선 등 다양하다.

학생들은 선실에서 선체조로 몸을 정결하게 한 뒤 등글레 모여앉아 자세를 바르게 하고 주의집중을 통하여 부드럽고 고요한 호흡을 하며 좌선에 든다.

따뜻한 정신을 일으키고 참선 중간중간에 요가도 곁들여 몸을 편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정숙교수는 "바른자세 호흡 시·공을 초월한 마음을 닦음으로서 지혜를 열어 현대사회에 바람직한 복지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과거는 물질복지였다면 현대는 문화복지와 정신복지 위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선과 선체조는 재활의학 차원에서 환자들에게 정신적 불안정상태를 해결해주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원광보건전문대 '사회복지와 선' 강좌는 다른 학과 학생들의 수강이 이어질만큼 인기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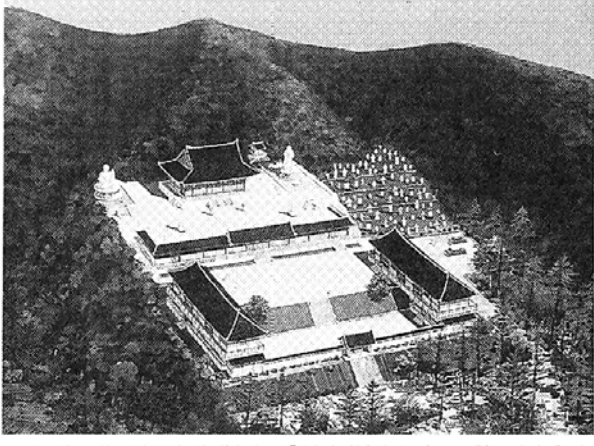
그럼으로 전국에서는 처음 시도했다"고 밝혔다.

생활참선과 선체조는 일선 복지관과 병원에서 영·유아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응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주(사회복지과 2년, 원광대병원근무)양은 "선과 선체조는 재활의학 차원에서 환자들에게 정신적 불안정상태를 해결해주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사회복지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수업일수가 의외로 높음에 따라 일반교양과목으로 전환, 전교생들에게도 개방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이교수는 91년부터 3차례에 걸쳐 인도에서 참선·요가수행했고 해인스님에게 108선체조를 수련했으며 국제선무학회(회장 김철교수, 원광대) 연구원으로 활동중이다.

익산=김원우 기자



심보사는 청소년 법당부터 노후복지시설까지 갖춘 종합도량인 육지장사 기공식을 갖는 등 10년 포교불사에 나섰다. 사진은 2002년 완공될 육지장사 조감도.

삼보사 종합복지도량 건립

육지장사 내달기공... 청소년회관·치매병원도

청소년법당부터 노후복지시설까지 갖춘 종합도량이 건립된다. 삼보사(주지 지원)가 10년 포교 불사의 첫삽으로 11월 8일 기공식을 갖는 육지장사가 바로 그곳.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 산 128-1번지 5천여평의 대지에 건립되는 육지장사는 대웅전, 설법전, 청소년법당 및 회관, 요사채 등을 갖추고 2002년 완공될 계획이다. 특히 육지장사는 청소년교회의

중심도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회관이 완공되면 효행학교를 개설, 참선수련, 환경세미나, 청소년지도교사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어린이집 운영, 일반인도 및 새마을자포교 개발 등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펼친다. 또 육지장사불사는 2차불사로 노후복지를 위한 노인치매병원도 건립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지원스님은 "갈수록 신도들의 신앙심이 없어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대생활에 맞는 포교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후보 종교정책 방송

대구BBS 20-24일

불교대구방송은 20일부터 24일까지 매일 오후 6시에 97특별대담 '대선후보의 종교정책과 정당불자회 활동을 듣는다'를 방송한다. 법타스님(불교대구방송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대담에는 신한국당 함종환 의원(신한국당 불자회 회장), 국민의회의 추미애 의원(연동회 부회장), 지민련 박철언 의원(지민련 불자회 회장), 민주당 권오승 의원(당 대변인), 국민신당(가칭) 반영준 교수(종교담당 특별보좌관, 성신여대) 등 각 정당 불자회 및 종교담당 의원들이 출연해 각 정당별 종교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실천가능성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이와관련 각 정당의 종교정책에 대한 불교계의 이익을 대변할 불자회의 활동도 살펴볼 계획이다.

신록사 문화재 훼손우려

여주군 주변지역 '보존지구' 해제 추진

경기 여주군이 신록사와 영릉 주변 일부를 문화재보존지구 지정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여주군은 북내면 천송리 신록사보존지구 52만㎡ 중 37만5천㎡와 능서면 왕대리 영릉보존지구 3백94만㎡ 중 19만1천4백㎡를 지구지정에서 해제시키는 도시계획변경안을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으며 도시계획위는 이날만 현지조사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기로 했다.

문화재 훼손이 우려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영릉 일대 땅 19만1천4백㎡ 가운데 15만8천4백㎡는 특정인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마저 일고 있다.

비구·비구니 공동수행처 btn, 25일 '중 자운사' 탐방

불교TV의 다큐멘터리 '중국명찰 순례' (25일 12시30분)는 비구와 비구니가 함께 수행하는 중국 유일의 시방총림 자운사를 찾아간다. 더 많은 중생을 거두겠다는 운암스님의 서원으로 전통적인 불교관습을 깨고 비구니와 비구 도량을 함께

"황성공원 체육관 짓지말라"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회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수회(회장 오홍세)는 8일 경주황성공원에 건설중인 실내체육관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회는 "황성공원은 4번째기동 안 공원지구를 묶어온 도심내의 역사공원이자"며 "자연과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체육관공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고 있는 자운사. 동서양을 접목한 형태로 사구건축양식이 두드러진 자운사는 풍경에서 제일 큰 사찰로 자라가 목을 속 내민 모습을 하고 있는 건물과 기둥이 매우 화려해서 장엄미가 넘쳐난다.

대웅보전 중앙에는 높이 1.87미터, 넓이 1.43미터 무게 삼천근의 중국에서 현존하는 최대 육불 중의 하나가 자리하고 있다.

Advertisement for Hoesung Stone Craft Co., Ltd. (효성석재공예사). It features images of stone carvings and a list of services including stone sculpture, stone paving, and stone landscaping. Contact information is provided at the bottom.

Advertisement for Kim's Sound Research Institute (Kim's 음향연구소). It promotes soundproofing and audio equipment services. Key features include soundproofing for studios, recording studios, and live performances. Contact information is provided at the bottom.

Advertisement for Haeil Buddhist University (海東佛敎大學). It lists the 24th Buddhist Ceremony (제24기 佛敎儀式) and provides details about the event, including dates, loc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The university's name is written in both Korean and Chinese characters.